

문화재청 공고 제2020-1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거나 해제 및 지정정보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총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4.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불상 1구, 대좌 1점, 중수발원문 2점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2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관음선원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해제사유
국보 제168호 (1974.7.9.)	백자 동화매국문 병 (白磁 銅畫梅菊文 瓶)	1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원나라 제작 품으로 우리나라 도자사에 끼친 영 향이 미흡함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및 수량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 증요의제보살만행 수능엄경(언해) 권7~8, 9~10	대불정여래밀인수 증요의제보살만행 수능엄경(언해) 권7, 8, 9, 10	4권 2책	4권 4책	훼손된 문화재를 원 형복원함으로써 역사 적·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분책(分冊) 에 따른 권차를 명칭 에 반영하여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현 지정현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9호(1972.8.7.)
- 명 칭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약수리 26) 백양사
- 수 량 : 불상 1구, 대좌 1점, 중수발원문 2점
- 규 격 : 불상 높이 208.2cm, 무릎 폭 150.9cm, 대좌 51.5×183.7×144.3cm
중수발원문①(1741년, 26.1×131.5cm), 중수발원문②(1775년, 45.2×59.6cm)
- 재 질 : 목조, 소조
- 조성연대 : 1607년(선조 40, 불상 및 대좌), 1741년(영조 17) 개금, 1775년(영조 31) 개금
- 제작자 : 현진, 휴일, 문습
- 사 유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07년(선조 40) 조선 후기 현진(玄眞) 등 3명의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으로, 돌아가신 선왕(先王)과 선왕후(先王后)를 비롯한 왕실 조상들의 성불(成佛)을 기원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1610년 이전에 조성된 불상 중 규모가 가장 큰 대형 불상이자 임진왜란 등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진행된 불교 복구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다. 비록 불사(佛事)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좌 밑 묵서(墨書)에는 불상 제작과 관련된 연대와 제작자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현진(玄眞)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기존에 알려진 그의 작품 중 가장 이르다고 알려진 1612년 제작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보다 5년 앞서 조성된 것으로 조각사적 의의 또한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작기법적 측면에서는 목조기법과 소조기법을 함께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즉 먼저 나무로 불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만든 후 자연스런 표현을 위해 일부 진흙을 사용해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원만하고 당당한 얼굴과 어깨,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처리된 옷 주름 등에서 1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조형 감각이 엿보인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진의 가장 초창기 작품으로, 그의 활동 범위와 작품세계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이다. 아울러 1741년과 1775년에 이루어진 개금(改金) 중수 사실이 남아 있어 불상의 조성부터 중수내력과 참여 화원(畫員)들의 역할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크다.

대좌(臺座) 역시 제작과 관련된 묵서명이 남아 있는 희귀한 사례이므로 17세기 불상 대좌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가 되므로 불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관음선원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남장 1길 303 남장사
- 규 격 : 상 높이 93cm, 무릎 폭 57cm
- 수 량 : 1구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조선 초기(15세기), 1701년(숙종 27) 개금
- 사 유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이나 처음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 멋스럽게 주름잡은 옷 깃과 ‘ㄱ’형의 팔꿈치 주름, 무릎 앞으로 펼친 부채꼴 주름, 화려한 영락(瓔珞) 장식, 둥글게 말아 올린 보계(寶髻)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인 15세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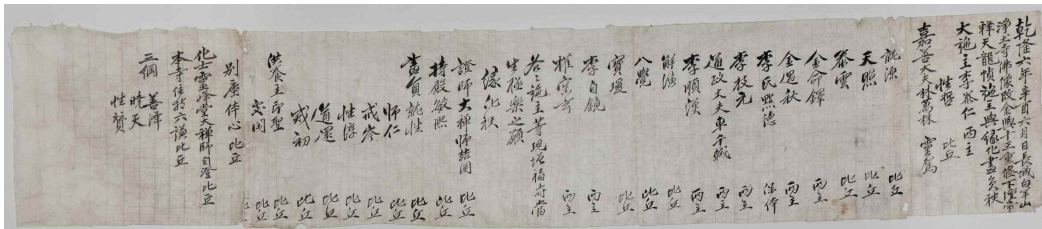
조선 초기에 제작된 불상의 현존 사례가 극히 드문 현실을 감안하면,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작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2년 개금중수(改金重修) 과정에서 발견된 1701년 「중수관음존상복장발원문(重修觀音服藏發願文)」과 1841년에 작성된 「불상 및 후불탱개금기(佛像及後佛幀改金記)」 등을 통해 불상의 제작 또는 중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불상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상주 관음선원 관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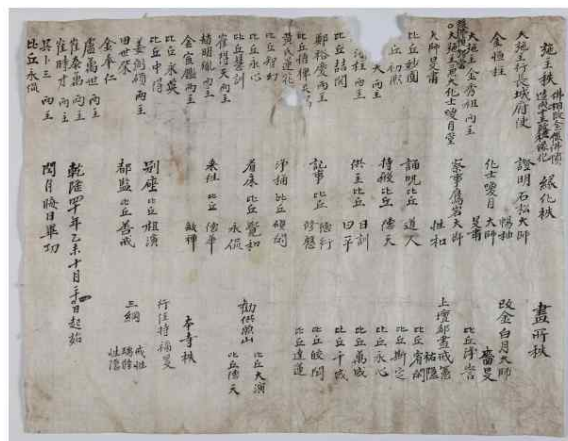
[지정 예고 사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대좌 포함)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중수발원문, 1741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중수발원문, 1755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